일본 반도체화합물 판매 둔화

91년 상반기 130억엔대 … GaAs 26% 증가

일본은 반도체 등 일렉트로닉스 재료·부품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, 갈륨히소(GaAs) 등 반도체화합물 재료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.

91년 상반기 일본의 반도체화합물 통계에 따르면, 판매액은 90년대비 16% 증가한 130억엔에 달했지만, 90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0.5% 증가에 그쳤다.

<표> 일본의 JAMS-CS 판매실적

(단위:100만엔, %)

구	분	GaAs	GaP	InP 등	합 계
1986	상반기	4,314(110)	3,727(—)	730(—)	8,771(113)
	하반기	4,031(92)	3,649(—)	856(—)	8,536(105)
	전 체	8,345(101)	7,376(—)	1,586(—)	17,307(109)
1987	상반기	4,192(97)	4,594(123)	1,142(156)	9,928(113)
	하반기	4,205(104)	4,047(111)	1,018(119)	9,270(109)
	전 체	8,397(101)	8,641(117)	2,160(136)	19,198(111)
1988	상반기	4,255(102)	4,163(91)	695(61)	9,113(92)
	하반기	4,194(100)	3,861(95)	770(76)	8,825(95)
	전 체	8,449(101)	8,024(93)	1,465(68)	17,938(93)
1989	상반기	4,550(107)	4,767(115)	1,042(150)	10,359(114)
	하반기	4,701(112)	4,436(115)	1,117(145)	10,254(116)
	전 체	9,251(109)	9,203(115)	2,159(147)	20,613(115)
1990	상반기	4,822(106)	5,350(112)	1,076(103)	11,248(109)
	하반기	6,124(130)	5,764(130)	1,075(96)	12,963(126)
	전 체	10,946(118)	11,114(121)	2,151(100)	24,211(117)
1991	상반기	6,059(126)	5,981(112)	991(92)	13,031(116)

주)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.

특히 최대시장인 갈륨히소는 1% 감소,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.

91년 상반기 판매실적은 LED(발광 다이오드) 등 오토디바이스용 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점과 마이크로파 디바이스용의 높은 증가세, 갈륨히소IC의 증가, chip 판매 신장 등으로 89년 이래 분기별로는 최고치인 130억3100만엔을 기록했다.

결정별(結晶別)로는 갈륨히소가 90년 동기대비 26% 증가한 60억5900만엔, 갈륨인(GaP)이 12% 증가한 59억8109만엔, 인즘인(InP) 등이 8% 감소한 9억9100만엔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전기대비로는 갈륨인이 디스플레이용의 폭넓은 수요로 3.8% 신장됐으나, 갈륨히소는 최근 위성방송용 HEMT(고전자이동도 트렌지스터)소자용 등의 정체 경향으로 1.1% 감소했다.

<화학저널 1992/3/15>